

“ 3.1운동과 윤리회복운동 ”

■ 이종윤 원로목사

3.1독립운동1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3.1독립운동의 핵심가치는 자유 · 정의 · 평화 · 평등 · 행복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였다.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 파괴와 생명경시 현상이 시대정신처럼 통용되는 이 사회에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성(性)윤리와 생명윤리가 바로 세워져야겠다. 이성간의 일부일처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가정을 떠나 한몸을 이루어 일생을 통한 연합된 삶을 산다. 성적 욕구들은 이러한 연합 속에서 성취되어야 하며, 이 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독교적 지식과 실행 속에서 돌보고 양육되어야 한다. 인간의 범죄도 이러한 방식에서의 탈선에서 일어난다. 성경은 결혼의 약정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데 동성간의 성적 연합도 그러하다. 음행을 저질렀거나, 불신자들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배우자를 버렸을 경우 이혼에 의한 결혼의 해소는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듯,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성경에서 묘사된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이러한 머리됨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비록 임신 후 약을 먹거나 낙태와 같은 피임으로 새생명을 파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성경은 엄격히 금한다. 태어난 아기와 태에 있는 아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하고 명백하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출생 전과 출생 후의 생명 사이에 구별을 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도 인간의 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세계적 추세가 낙태의 전면적 금지에서 제한된 자유화 또는 전면 자유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 낙태를 불법화 하려는 나라들도 있어 찬반양론으로 분열되고 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생명은 임신 때에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 그리고 시편 139:15, 이사야 49:1, 누가복음 1:15; 41 등에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임신의 어려움을 갖는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 전자 제공이나 대리모를 사용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가능한 선택은 아니지만, 인공수정은 하나의 가능한 선택이다. 질병, 장애 또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기할 수 있는 성인들을 통한 실험이 그러하듯이 인간 배아를 통한 실험 역시 인간생명을 파괴한다. 인간복제(체세포 이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재생복제나 치료용 복제 모두 성(性)과 출산이 결혼의 언약 관계의 부분인 성경적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간의 과학적 발견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본질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그의 도덕적 질서를 무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삶과 자식을 낳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들로 인식되어 져야 하며 그것들은 모두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을 주장하기 전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한다. 새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행위이듯, 사람의 생명의 종국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기원과 종료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 있다. 약품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종료하는데 사용될 수 없으며 개인적 즐거움을 주거나, 환각의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비록 현대기술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생존하게 할 수 있더라도 뇌의 활동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와 같은 기계를 잠그는 것은 잘못이 없다. 인간의 몸은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현대의학은 적절한 치료와 수술, 치료용 약물도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식은 질병을 고치거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개입의 합법적 연장(延長)으로 받아들인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3.1독립운동1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권의 존엄성과 가치가 혼미한 현대사회에서 무너지는 담벽과 흔들리는 터전을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 경외사상과 하나님이 주신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쓰러진 성(性)윤리와 생명윤리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내 가정에서부터 회복의 운동이 불도록 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632호] 2019년 3월 2일 발행-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Mrs.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4-9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Grace and Peace" Rev. Euichang Kim
* Hymn	210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중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씩, 이경엽, 알로르,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박영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림(군산교)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죄에 대한 승리 ”

■ 롬 7:1-13, 24-25

1. 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도 의로워 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와 형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게 합니다.(롬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를 유발시키며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2. Miss 죄인이 Mrs. 크리스찬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결혼 관계의 유추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나 예수는 죄인된 당신을 내 신부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에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는 신실한 구주가 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주님 면전에 부름 받고 서게 된 우리도 서약합니다.
 ‘나 죄인은 당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신랑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에 영원토록 당신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롬 7장)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거룩한 열매를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심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3. 그 때와 지금(롬 7:5-6)
 본문 5, 6절은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때를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제는’ (6절)이라는 말씀을 읽고 감동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와의 결혼 관계를 말함으로 인해서 새사람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은 육으로 있을 때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있을 때를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대립시켜 말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열매는 사망이나 신자는 신행일치라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롬 7:24, 25)
 “오하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롬 7:24). 죄의 형벌, 죄의 권능, 죄의 실체로부터 우리를 구원은 최종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그 분을 더욱 닮고, 그 분을 더욱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적 전쟁은 연약할 때 보다 성숙한 신자에게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승리는 은혜를 입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분과 연합하므로 이기게 됩니다.

맺는 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거룩해 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합니다. 예수는 마 5:17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 5:17)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새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말씀, 성도 교제, 성경, 그리스도와 연합, 소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의 구원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며 죄에 대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인 도 자

임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4-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0(시 16)....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4(10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계 2:2-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처음으로 돌아가자”...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264(19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9:1-2 인 도 자
 찬 송 20(41) 다 함 께
 기 도 박희서 집사
 성 경 약 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 설 교 자
 * 찬 송 218(369)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김남순 권사
 성 경 호 12:1-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께서로 돌아오라" ... 설 교 자
 * 찬 송 장석남 목사
 * 주기도송 다 함 께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25)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부					성구			
수요 I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 정기당회 / 6일(수) 수요예배 후 가이오실
- 가브리엘 찬양대 연습 / 9일(토) 오후 3시 101호

알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이종욱(진검)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88명	232명	192명	1,312명	138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2/2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2월 24일	헌 금	36,217,200	
	말씀봉사비		18,010,000
	급 여		33,084,000
	찬양대사례비		12,950,000
	교회학교사례비		10,270,000
	선 교 비		33,550,322
	구 제 비		500,000
	비전2020		5,880,000
	출 판 비		296,000
	지원교회		3,800,000
	인 건 비		6,122,600
	복리후생비		119,800
	통 신 비		817,620
	수도광열비		440,560
	차량유지비		311,430
	소모품비		1,564,860
	수선유지비		242,000
	식당운영비		760,530
	합 계	36,217,200	128,719,722